

第16回 國際技能競技大會 參加記

韓國電力株式會社 技術部 系統計劃課長

第16回 國際技能競技大會 第7分科 審査委員

成 樂 正

1. 國際技能競技大會 參加의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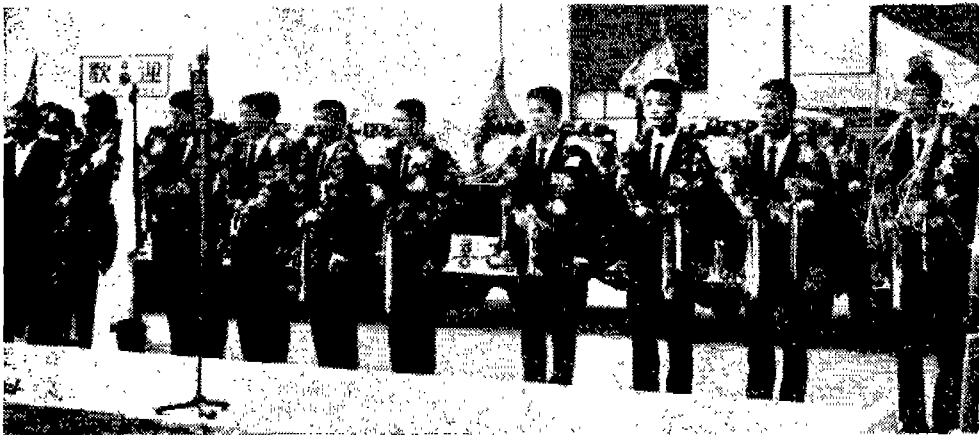
世界の先進諸國과 어개를 나란히하여 優秀한 成績을 견음으로써 韓國의 技能水準이 높다는 ことを 世界에 誇示하고 後進國視하는 世界の 韓國觀을 拂拭하고 國內 商品 및 技術의 輸出增進을 圖謀하며 健全한 韓國의 技能靑少年像을 보여줌으로써 國際親善과 民間外交에 이바지하는데 于先 國際技能競技大會 參加의 意義가 있다. 同時에 先進諸國의 最新技能을 導入하여 國內의 各 產業界에 傳播하고 國內의으로는 靑少年技能工들에게 國際舞臺進出의 꿈을 안겨주어 技能의 開發과 向上을 刺戟하는데서도 意義를 찾아볼 수 있다.

運動競技를 통한 國際親善과 國威宣揚도 重要な 일이라고 하겠으나 技能競技를 통한 國際親善과 國威宣揚은 加一層 意義가 크다고 確信하는 바이다.

現在 우리나라가 指向하고 있는 經濟發展의 基本要素는 資本과 技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資本은 與件만 마련되면 導入될 수 있는 것이겠으나 技術의 導入은 그렇게 簡單하지가 않다. 特히 技能의 向上은 가장 어려운 問題이다.

그러나 現在의 우리 國內與件으로 보아 技能工들에 對한 處遇가 그들의 資質向上을 圖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無條件 大學을 나와야만 成功할 수 있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國民 多大數의 支配的인 觀念으로 되어 있



<金浦空港에서 歡迎받는 韓國代表團 一行>

다. 그러므로 모든 犧牲을 무릅쓰고 大學에 進學하려고 하며 무슨 짓을 해서라도 大學을 卒業하려고 한다. 그러나 國家는 大學卒業者만을 要求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國家經濟 發展에 더욱 큰 役割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技能工들이다. 따라서 有能한 技能工은 充分히 處遇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靑少年들로하여금 自己 形便에 따라서는 반드시 大學에 안가더라도 大學出身者에 뒤지지 않게 成長할 수 있다는 것을 認識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볼 때 今般 國際大會에 參加한 것은 國際親善과 國威宣揚이라는 면에서도 큰 意義가 있겠으나 國內靑少年들에 對한 影響력과 나아가서는 國家的인 氛圍氣 造成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믿는 바이다.

2. 國際技能競技大會의 機構

技能競技大會는 1947年 西班牙에서 國內大會로 始作되어 매우 成功的이었으므로 數年後에는 西班牙 技能工들과 共히 葡萄牙靑年들을 이 大會에 招請하였다고 한다. 卽 1950년에 西班牙와 葡萄牙 間에 競技가 開催됨으로써 國際的 性格을 띠게 되었고 1951년에는 Madrid 駐在의 大部分의 外交團體가 參觀를 爲하여 大會에 參席하였다고 한다. 그 結果로 奧地利, 白耳義, 丁抹, 西獨, 和蘭, 愛蘭, 伊太利, 日本, 북셀부룩, 瑞西, 英國 等 國家들이 加入을 希望하게 되었고 1966년에는 韓國도 이에 加入하게 되었던 것이다.

最初의 6회까지의 大會는 西班牙에서 開催되었다고 한다. 1958년의 第7회 大會는 白耳義의 Brussels에서 開催되었으며 今後 大會는 伊太利의 Modena, 西班牙의 Barcelona, 西獨의 Duisburg, 西班牙의 Gijon, 愛蘭의 Dublin, 葡萄牙의 Lisbon, Scotland의 Glasgow, 和蘭의 Utrecht 등에서 開催되었다고 하며 이번의 第16회 大會가 또다시 西班牙의 首都 Madrid에서 開催되었던 것이다.

이 大會는 各國의 技能工과 代表者들에게 重要한 經驗이 되었다. 現在까지 14個國에서 約 2,000名의 技能工과 여러가지 職種の 專門家 및 技術者들이 이 大會를 通하여 서로 經驗을 比較하고 職業訓練의 여러가지 方法을 研究하며 또한 他國民의 生活風習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今般의 第16회 大會는 12個國으로부터 모여든 23

4名의 技能工들 사이에서 36個(5個 示範競技 包含) 職種에 걸쳐 競技가 進行되었으며 亦是 12個國으로부터 56名의 審査委員과 26名의 公式代表 및 技術代表들이 參加하였다.

234名의 技能工들은 西班牙에서 38名, 西獨에서 32名, 英國에서 26名, 和蘭에서 25名, 愛蘭에서 21名, 日本에서 20名, 葡萄牙에서 19名, 瑞西에서 18名, 白耳義에서 15名, 伊太利에서 11名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9名이며 북셀부룩에서는 出戰하지 않았다.

3. 審査會議

憲章에는 國際會議로서 公式委員會와 技術委員會를 規定하고 있다. 審査會議는 一種의 實務會議라고 볼 수 있으며 職種別로 競技運營과 直接 關聯을 가지고 있다.

今般 大會는 7月 8日의 開會式으로부터 始作되었던 것이나 審査會議는 大會準備라든가 課題選擇 等의 일이 있으므로 7月 4일부터 始作되었다. 原則적으로 審査會議는 各分科別 技術代表를 中心으로 課題의 選擇, 採點基準의 作成, 選擇된 課題에 따르는 競技에 必要한 機器具準備에 對한 確認 等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筆者가 關係하였던 第7分科에 關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로 한다. 第7分科는 電氣部門으로서 動力配線과 屋內配線의 2個 職種으로 되어 있다. 技術代表는 西班牙 技術代表인 Diomedes Palencia 氏로서 좀 말이 많은 便이었다. 審査委員으로는 10餘年間 이 部門의 審査를 繼續해 왔다고 크게 貫錄을 자랑하는 愛蘭의 Tighe 氏, 約 5年間 審査를 繼續해 왔다는 西獨의 Siemens會社 技術者인 Nispel 氏, 筆者와 더불어 初年生인 葡萄牙의 Costa 氏, 그리고 筆者의 4名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7月 5日 事務局에서 第7分科 技術代表인 Palencia 氏를 紹介받은 다음 Palencia 氏의 案内로 競技場에 가서 審査委員들을 하나 하나 紹介받고 곧 會議에 參與하였다. 알고 보니 第2日째로서 이미 課題는 選定된 後이었다. 動力配線에는 日本出題, 屋內配線에는 葡萄牙出題가 各各 選定되어 있었다. 모두들 같이 出題된 圖面에 對한 檢討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競技場 事情에 맞도록 出題中의 一部分은 修正을 加해야만 하였다. 初年生인 우리에게는 氛圍氣를 把握하는 것이 첫째 任務이었다. 氛圍氣가 그나지 좋지 못하게 느껴졌다. Palencia 氏는 主催國의

技術代表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바쁘게 돌아다녀서 會議는 主로 4名의 審査委員만으로 進行되었다. 多幸히 4名의 審査委員들은 通譯없이 英語로 會議를 進行할 수 있고 充分히 意見交換이 可能하였다.

課題에 對한 檢討와 採點基準을 完全 合議에 따라서 作成하여 技術代表에게 傳達하고 競技場 管理委員들에게 機器具 및 材料 準備를 시켰다. 그런데 使用하게 될 機器具準備에 있어서 代表 技術委員과의 사이에서 意見衝突이 생겼다. 主催側로서는 財政的인 理由를 들어서 動力配線에 使用될 magnetic contact와 thermal relay를 訓練所에서 使用하던 訓練用을 利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管理委員들을 通하여 韓國側의 同調를 懇勸히 要請해 왔었다. 葡萄牙의 技術委員은 中立을 取하고 있었으나 西獨과 愛蘭의 技術委員들은 強力하게 反對하였다. 우리나라 選手의 立場을 考慮할 때 筆者는 不可不 西獨 및 愛蘭側에 贊成하게 되었고 葡萄牙側도 結局 贊意를 表하게 되어 結局 Palencia 氏는 財政形便上 不可能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우리들 4名의 審査委員들은 對策을 講究하기 爲하여 意見交換을 始作하였다. 할수 없이 Madrid 市內에 있는 Siemens 會社를 訪問하여 付託해 보기로 하고 4名이 택시便으로 Madrid Siemens會社를 찾아 갔다. 多幸히도 우리들의 競技를 爲하여 要求하는 것들을 約 2週間 貸與해 주겠다는 約束을 받았다. 이 結果를 Palencia 氏를 通해서 事務局에 通告함으로써 第1次 紛爭은 끝났다.

同時에 競技準備는 大體로 完了된 셈이다.

4. 開 會 式

7月 8日 午前 10時부터 文教科學部 長官 Manuel Lora Tamayo 氏 參席下에 開會式이 産業會館 大講堂에서 舉行되었다. 모든 發言은 西班牙語, 英語, 獨語 및 佛語로 同時 通譯하게 되어 있었으며 各種 設備들이 잘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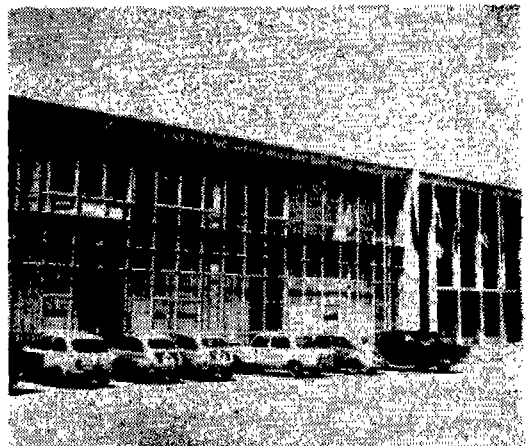
各國의 國歌가 演奏되는 가운데 旗手가 國旗를 들고 入場하였다. 愛國歌가 演奏되는 가운데 太極旗를 들고 우리 代表 一同이 入場할 때 참으로 感慨無量하였다. 우리도 이제 先進國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技能을 다루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말로는 表現하기 힘든 感情이 용소슴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一面 서글픈 느낌을 禁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 選手들에 比할 때 우리나라 選手들의 體格이 顯著하게 食弱한 것이다. 우리도 빨리 나라를 富強하게 하여 다음 世代를 이어줄 靑少年들에게 잘 먹여서 肉體的으로도 다른나라 靑少年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야만 되겠다. 우리나라가 富強해질 수 있는 源泉이 바로 이들 技能工들의 技能向上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今次 國際大會 參加의 意義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5. 競 技 의 進 行

開會式이 끝난 後에 모두 버스便으로 競技場으로 向하였다. 選手들은 工具를 갖다 놓고 競技場所에 익숙해지는 한편 作業場所에 各 選手들을 配當해 주게 되어 있었다. 第7分科에서는 作業臺 配置를 하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일이 끝나게 되어 選手들을 모두 돌려 보냈다.

時間이 좀 있어서 다른 競技場을 돌아보고자 事務局 쪽으로 가다가 李成雨 社長을 만났다. 李 社長 말에 依하면 洋服은 이미 어떤 選手는 作業을 始作하고 있다는 것이다. 異常하게 생각되어서 洋服競技場으로 가 보았다. 마침 西獨의 女子選手(3位 入賞者)가 일을 始作한 것을 目擊하였다. 마침 그 場所에 白耳義 審査委員이 있어서 競技始作을 宣言하였는가라고 물어 보았다. 그는 競技는 原計劃대로 7月 10일부터 始作할 것이나 簡單한 準備는 해도 無妨하다고 하였다. 都大體 어디까지가 準備인지 알 수 없는 對答이었다.



<競技場 本館前面>

이날 木工競技場에서도 紛爭이 있었다고 들었다. 某國 審査委員이 지나치게 不公平한 作業準備를 하고 있어서 韓國側에서 抗議하였으나 是正이 안되어서 不得已 事務局에까지 얘기가 가서야 收拾되었다는 것이다. 그 審査委員은 過度하게 公正치 못하였다는 말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 들었으며 筆者 自身도 目撃한 바가 있었다.

正常的인 競技는 7月 10일부터 始作되었다. 第7分科에서는 아침부터 말썽이 생겼다. 다른 것도 아닌 選手들의 作業臺 抽籤에서였다. 오랜 記錄을 자랑하는 愛蘭의 Tighe 氏는 抽籤準備를 해가지고 屋內配線 競技者들을 불러 놓고 4名の 審査委員 立會下에서 抽籤을 하여 作業臺를 配置하였다. 競技者들은 工具를 作業臺에 配列하기 始作하였다. 이것을 보고 있던 技術代表인 西班牙의 Palencia 氏는 이 抽籤은 無効라고 主張하였다. 여기서부터 또다시 問題가 생긴 것이다. 霧囂氣가 좋지 않았다. 옥신각신 是非를 하다가 Tighe 氏는 動力配線도 作業臺 配置를 하겠다고 宣言하고 競技者들을 모아놓고 抽籤하여 配置하고 말았다. 다만 西班牙 選手만이 參加를 拒否하였다.

初年生인 筆者는 Palencia 氏에게 妥協할 것을 懇願하면서 動力配線 쪽은 技術代表의 意見을 無視하고 한 것이니 選手들에게는 未安하지만 一且 無効로 하고 再抽籤할 것을 建議하고 屋內配線은 다만 技術代表의 承認없이 했을 뿐이지 아무 말 없이 보고는 있었으므로 여러가지 面을 생각해서 그대로 進行시키자고 말하였다. 3名の 審査委員들은 이 意見에 同意하여 動力配線 競技者들을 다시 불러서 技術代表 및 4名の 審査委員 立會下에 Palencia 氏가 作成에 두었던 抽籤表에 依하여 作業臺를 再配置하고 即時 作業開始를 宣言하였다. 그리고는 屋內配線도 作業開始시키자고 했던 바 Palencia 氏는 如前히 再抽籤을 固執하고 있었다. 結局 妥協이 成立되지 못한 셈이다. 마침내는 事務局에서 나와 大會規則을 따지기 始作하였고 結局 各國의 技術代表들이 붙여서 意見交換하여 結論을 짓기로 하여 마침내는 屋內配線도 再抽籤하기로 되었다. 些少한 固執으로 約 2時間을 虛送한 結果가 되었다.

競技開催宣言이 있자마자 가장 어리둥절하는 것은 韓國選手와 日本選手이었다. 日本選手들은 처음 보는 機器들이라서 어리둥절했다고 하였으나 韓國選手들은 지나친 緊張으로 몸과 마음이 풀리지 않아

서 그런 것 같았다. 이와 같은 緊張은 結局에 가서 第1次の 失手를 招來하였다 約 3時間이 지났을 때 板上에 구멍을 잘못 뚫어서 voltmeter가 frame angle에 걸려서 끼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瞬間的으로 나는 眩氣症을 느끼었다. 할수 없이 減點을 覺悟하고 그리고 3時間이라는 費重한 時間을 버리면서 새로운 板을 支給하도록 技術代表 및 審査委員들과 議論하여 決定하였다.

이 때부터는 相當히 焦燥해 하고 있음이 눈에 띄었으므로 安心하고 作業하도록 注意를 주었다. 約 3時間이나 損害를 보았는데도 不拘하고 比較的 일적 作業을 끝마치었다. 萬若에 처음에 失手만 안했더라면 색 좋은 成績을 올릴 수 있을 것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入賞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오직 審査중에 다른 失手만 안나오기를 祈願하면서 採點基準에 關한 意見交換을 하였다.

6. 審 査

採點基準에 따라서 審査를 開始하였다. 모든 審査委員들은 可能的 限 公正하고 客觀性이 있는 審査를 하려고 하였으나 第7分科에서의 採點에는 審査委員 各自의 主觀이 相當히 影響을 주었다는 것에 對하여는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客觀的 採點을 爲하여 잘된 것은 9~10點, 普通인 것은 7~8點, 普通以下 水準의 作品에 對하여는 6點 以下를 주기를 하고 機能에 있어서는 動作을 하면 10點, 不然이면 零點을 주기로 事전에 約束을 하고 採點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한 것이 保護와 絶緣이었다. 먼저 檢討한 것이 適格의 fuse가 들어가 있고 thermal relay가 適當하게 調整이 되어 있는지였다. 豫想外로 틀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簡單한 基礎知識의 不足에서 오는 結果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다음에는 steel conduit 나 frame angle 을 接地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接地를 해놓은 選手는 3, 4名 밖에 없었다. 2, 3名은 機器들을 지나치게 接近시켜 取付하고 있었으며 箇中에는 knife switch의 負荷側과 電源側을 뒤바꿔 取付한 選手가 몇名 보였다. 다음에 본 點은 連結點 附近의 絶緣物을 벗긴 狀態인데 지나치게 많이 벗긴 選手들이 比較的 많았다.

다음에는 機能檢査를 하였다. 實際로 動作을 하

게 되어 있는지를 部分的으로 試驗하였다. 動力配線에 있어서 電動機가 起動이 안되는 起動制御回路는 無意味하다. 起動이 안되는 作品이 5個나 있었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韓國選手의 作品이 그 中의 하나가 되었다. Magnetic contact switch와 thermal relay와의 接觸子を 조이는 나사가 풀려 있어서 接觸이 안됨으로써 動作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選手 自身은 누구인가가 故意的으로 그와 같이 했을 것이라고 抗議한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推測이고 根據가 없는 抗議에 不過하였다. 여기에서 韓國選手는 入賞資格을 喪失하고 만 셈이다.

세째로 採點한 것이 配線과 機器의 取付狀態이었다. 機器의 取付狀態가 堅固하지 못한 選手들이 相當히 많았고 整列配線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選手들이 너무나도 적었다. 比較의 잘 되어 있는 作品으로는 日本選手의 作品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는 施工上의 失手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pilot lamp를 frame에 지나치게 接近하여 取付한 選手가 있었다. 그리고 端子를 取付하는데 washer를 안 사용한 것은 勿論 nut 한 個를 채워서 그것을 電線을 連結하는데까지도 使用함으로써 조금만 잡고 흔들면 連結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作品도 있었다. 또한 이들 端子들을 너무나 恣意로 取付한 作品도 몇 個 있었다.

네째로 본 것이 連結이다. 주로 본 것은 straight 連結과 loop連結이었다. Straight 連結에서는 몇줄의 電線을 한쪽에만 붙여서 끼워 조금만 흔들면 빠져버리는 作品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loop連結에 있어서는 loop를 둥글게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 것 또는 loop가 너무나 벌어진 것이 있었다.

다섯째로 材料의 經濟的 使用에 있어서는 過用했다던지 材料를 잘못 使用해서 損傷을 주었다던지 또는 못쓰게 한 경우가 있었다. 審査途中에 意見差異가 있었던 것은 板上에 구멍 몇個 잘못 뚫은 것이 있는 것과 韓國選手와 같이 크게 失手하여서 바뀐 것과 어느 程度의 差異를 두느냐에서였다. 조그만 구멍이 몇個 있어도 이미 商品價値는 없다는 點에서는 마땅히 板을 交換했어야 하므로 똑같이 減點해야 한다는 意見이 支配의이어서 그와 같이 하고 말았다.

끝으로 한 것이 機器들의 配置에 對한 採點이다. 여기서는 全般的인 觀點에서 採點하고 다음에는 合

理的인 配置가 되어 있는지에 對한 採點 그리고는 運轉과 保守가 便利하게 되어 있는가에 對한 採點을 하여 綜合을 하였다.

以上과 같이 作品 自體에 對한 採點을 하여 100點 滿點으로 點數를 내고 다음 時間採點도 100點 滿點으로 하여 作品에 對하여는 0.95倍, 時間에 對하여는 0.05倍하여 合計한 것을 綜合 點數로 하여서 順位를 定하였다. 그 結果는 아래의 成績表와 같다. 即 日本이 1位, 愛爾이 2位, 葡萄牙가 3位이고 韓國은 6位로 떨어졌다. 여기서도 곧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韓國이 機能에서만 50點을 얻었더라면 3位 入賞은 無難하였을 것이다.

順位가 決定되고 나서 葡萄牙 審査委員이 異議를 提起하였다. 그리고 審査表에 署名을 拒否하였다. 表示燈과 計器의 位置가 knife switch 前에 있는 것은 出題의 잘못이며 葡萄牙 選手가 한 것이 正當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機能에서 8.5點 減點 當한 것은 不當하다는 것이다. 萬若에 8.5點이 加算되면 1位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對하여 筆者는 韓國選手가 12.5點 減點 當한 것은 똑같이 不當하다고 하였다. 葡萄牙 選手에게 8.5點을 復舊시켜 주려면 韓國選手에게도 12.5點 復舊시켜 주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이 綜合順位가 나오기 前이라면 몰라도 이제 와서 異議를 提起하는 것은 採點上 公平性을 喪失할 可能性이 많으므로 再論 論하기로 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技術代表는 採點時 技術代表가 參與하지 않았으므로 認定할 수 없으니 다시 하자고 主張하고 나섰다. 愛



<動力配線 作業光景: 앞에서부터 和蘭, 伊太利, 西班牙, 韓國 選手들>

〈動力配線成績表〉

採點基準	最大點	採點								
		日本	葡萄牙	西獨	韓國	西班牙	伊太利	和蘭	英國	愛蘭
保護 및 絶緣	20	15.6	19.0	18.2	15.8	18.0	10.8	11.2	10.0	17.0
機能	50	50.0	41.5	37.5	37.5	31.5	50.0	31.5	31.5	50.0
配線과機器의取付	10	9.0	7.6	7.2	8.2	8.6	4.8	5.8	3.4	7.2
連結	10	9.7	7.0	9.3	7.7	8.0	6.3	4.3	8.0	7.3
材料의經濟的使用	5	4.25	4.5	4.25	3.25	4.25	4.5	3.25	3.5	4.25
機器의配置	5	4.25	4.9	4.4	2.75	3.90	3.0	3.15	2.4	3.15
小計	100	92.8	84.5	80.85	75.2	74.25	79.4	59.2	58.8	88.9
0.95倍小計	95	88.2	80.28	76.81	71.44	70.54	75.43	56.24	55.86	84.46
使用時間	23Hr	20.75	20.75	18.75	19.25	20.40	18.10	18.40	19.90	20.00
時間點數		65	65	71	70	67	73	71	69	69
0.05倍時間點	5	3.25	3.25	3.55	3.5	3.35	3.65	3.55	3.45	3.45
總點	100	91.45	83.53	80.36	74.94	73.89	79.08	59.79	59.31	87.91

蘭의 Tighe 氏는 再採點은 不可하다고 말하고 一方의으로 호텔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머지 3名의 審査委員과 技術代表 사이에서 끝없는 論爭이 始作되어 밤 12時가 되어도 끝이 나지 않았다. 할수 없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論議하기로 하고 各自 호텔로 돌아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于先 技術會議가 開催되었다. 그런데 未決狀態의 採點結果는 그대로 아무말 없이 技術會議를 通過하고 말았다. 말쑥했던 審査가 이것으로써 終結을 짓게 된 것이다.

이번 大會에 韓國은 9名의 選手가 出戰하여 洋服과 製靴에서 各各 金메달, 木型에서 銀메달, 板金과 塗裝에서 各各 銅메달을 獲得하였으며 旋盤에서는 大會長賞을 받음으로써 9名中 5名이 메달을 탔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 比하여 좋은 成績이라고 할 수가 있다. 動力配線에서 失手만 안했더라면 또하나의 銅메달을 獲得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哀惜하기 짝이 없다.

7. 閉會式

7月 17日 12時부터 産業會館 大講堂에서 閉會式과 施賞式이 舉行되었다. 各國에서 出戰하였던 젊은이들이 職種別로 불러나와서 賞狀과 메달을 타고는 서로 반가워하며 握手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特히 우리나라의 選手가 施賞壇上에 올라 있을 때 異常하게도 觀衆들의 拍手소리가 더욱 요란스럽

게 들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나만 그와 같이 들은 것은 아닐 것이다. 처음으로 번곳으로부터 出戰한 韓國에 對한 聲援일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 靑少年 技能工들의 水準은 先進諸國에 比하여 絶對로 遜色이 없다는 것을 確信하였다. 다음 大會에는 좀더 많은 選手들이 出戰하고 좀더 많은 메달을 獲得하여 韓國의 技術水準의 높음을 世界萬邦에 誇示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歸還報告를 끝맺는다.

★ 原稿募集 ★

第9號의 原稿를 募集합니다.

- 業體·團體 消息 ○ 研究事項
- 評論·提言 ○ 隨筆·紀行

枚數: 制限 없음 (但 橫書)

마 감: 1967年 9月 25日

送付處: 大韓電氣協會 事務局

備考: 掲載分 稿料贈呈